

# 2011 대수능 6월 모의평가

## 제2외국어/한문영역 한문과목 해설지

### [정답]

문 항	1	2	3	4	5	6	7	8	9	10
정 답	④	③	①	①	③	①	④	⑤	①	①
문 항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정 답	②	⑤	②	⑤	②	②	③	①	④	③
문 항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정 답	⑤	②	①	④	⑤	⑤	③	②	④	④

### [해설]

#### 1. [정 답] ④

[해 설] 변천과정에 알맞은 한자 유추하기

① 東(동)동녘 ② 果(과)실과 ③ 桑(상)뽕나무 ④ 集(집)모이다 ⑤ 樂(악)풍류

#### 2. [정 답] ③

[해 설] 형성자의 원리와 한자의 독음 알기

▷ 田 + 各(각) = 略(략) 다스리다

▷ 心 + 靑(청) = 情(정) 뜻

#### 3. [정 답] ①

[해 설] 제시한 조건에 적절한 한자 찾기

▷ 총획 ‘馬’(10획), 독음 ‘功’(공), 뜻 ‘敬’(공경하다), 부수는 아래편에 위치

① 恭(공)공손하다, 心-10획 ② 恣(자)방자하다, 心-10획 ③ 哭(곡)울다, 口-10획

④ 息(식)숨쉬다, 心-10획 ⑤ 貢(공)바치다, 貝-10획

#### 4. [정 답] ①

[해 설] 제시한 삽화의 내용에 관련된 한자 찾기

▷ 여자들이 널빤지 위에서 오르고 내리는(널뛰기를 하는) 장면

① 走(주)달리다 ② 昇(승)오르다 ③ 板(판)널빤지 ④ 降(강)내리다 ⑤ 跳(도)뛰다

5. [정 답] ③

[해 설] 제시된 삽화에서 경계하고 있는 교훈을 한자어로 찾기

▷ 지나친 욕심 때문에 물고 있던 고기마저 잃어버린 개를 그렸다.

- ① 我執(아집) : 자기 의견만을 고집함
- ② 愚弄(우롱) : 남을 어리석게 만들어 놀림
- ③ 過慾(과욕) : 지나친 욕심
- ④ 獨善(독선) : 혼자만 옳다고 믿고 객관성을 생각하지 않는 일
- ⑤ 自慢(자만) : 스스로 자랑하여 거만하게 굴

6. [정 답] ①

[해 설] 가로 세로 퍼즐에 공통으로 들어갈 한자 찾기

▷ 가로열쇠 : 上善若水(상선약수)    ▷ 세로열쇠 : 明若觀火(명약관화)

7. [정 답] ④

[해 설] 대화를 통해 빠진 한자어 유추하기

▷ 滿員謝禮(만원사례) : 정원을 다 차게 해주어 고맙다는 뜻

- ① 早朝(조조) : 이른 아침    ② 百拜(백배) : 백 번 절함    ③ 當選(당선) : 선거에서 뽑힘
- ④ 滿員(만원) : 정한 인원이 다 참    ⑤ 割引(할인) : 일정한 값에서 얼마를 뺌

8. [정 답] ⑤

[해 설] 삽화의 내용으로 유추할 수 있는 사자성어 찾기

▷ 권투선수가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 이를 갈고 마음을 썩이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

- ① 近墨者黑(근묵자흑) :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사람도 주위환경에 영향을 받기가 쉬움
- ② 老馬之智(노마지지) : 늙은 말의 지혜. 연륜이 깊으면 나름의 장점과 특기가 있음
- ③ 漁父之利(어부지리) : 양자가 서로 다투는 틈을 타서 제3자가 이익을 취함
- ④ 無爲徒食(무위도식) : 하는 일 없이 헛되이 먹기만 함
- ⑤ 切齒腐心(절치부심) : 몹시 분하여 이를 갈고 마음을 썩임

9. [정 답] ①

[해 설] 제시된 한자로 만들 수 있는 성어의 뜻 찾기

▷ 加(가), 同(동), 上(상), 家(가), 和(화), 附(부), 雷(뢰) ⇒ 附和雷同(부화뇌동)

▷ 附和雷同(부화뇌동) : 우레 소리에 맞추어 천지 만물이 함께 울린다는 뜻으로, 자기 생각이 나 주장 없이 남의 의견에 동조한다는 말.

附 : 붙을 부 和 : 응할 화 雷 : 우레 뇌 同 : 같이할 동

10. [정 답] ①

[해 설] 제시한 문장의 공통 주제 찾기

▷ 以責人之心 責己 : 남을 꾸짖는 마음으로 자기를 꾸짖다

▷ 欲勝人者 必先自勝 : 남을 이기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먼저 스스로를 이겨야 한다

▷ 破山中賊易 破心中賊難 : 산 속의 도적을 깨기는 쉬우나, 마음속의 도적을 깨기는 어렵다

① 修身(수신) ② 公利(공리) ③ 奉仕(봉사) ④ 勇猛(용맹) ⑤ 實踐(실천)

11. [정 답] ②

[해 설] 대화에 쓰인 한자어의 정확한 뜻

▷ 不動(부동) : 움직이지 않다 ▷ 浮動(부동) : 떠서 움직이다

12. [정 답] ⑤

[해 설] 글의 설명에 알맞은 그림 찾기

▷ 行則行, 止則止, 隨時而已. : 가면 따라 가고, 쉬면 따라 쉬고 그 때마다 따를 뿐이라네

13. [정 답] ②

[해 설] 글의 해석과 사자성어를 활용한 문장에 대한 이해

▷ 待有餘而後濟人, 必無濟人之日 : 여유가 있기를 기다린 뒤에 남을 구제하려고 한다면 결코 남을 구제할 날이 없을 것이다.

① 不恥下問(불치하문) :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음

② 此日彼日(차일피일) : 이날 저날 하며 자꾸 기한을 늦춤

③ 坐井觀天(좌정관천) : 우물에 앉아서 하늘을 봄. 견문이 좁음.

④ 守株待兔(수주대토) :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어 구습과 전례만 고집함

⑤ 多多益善(다다익선) :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음

14. [정 답] ⑤

[해 설] 제시한 삽화의 내용과 관련된 한역속담 찾기

① 吹之恐飛, 執之恐陷 : 불면 날아갈까 두렵고 쥐면 꺼질까 두렵다. 어린 자녀를 지극히 아끼고 사랑함

- ②窮人之事，翻亦破鼻：궁한 사람의 일은 얹어져도 또한 코가 깨진다. 운수가 사나운 사람은 무엇을 해도 잘 되지 않음
- ③合抱之木，生於毫末：한 아름이나 되는 큰 나무도 털끝 같은 작은 싹에서 시작된다.
- ④三歲之習，至于八十：세 살 버릇이 여든 살까지 간다.
- ⑤寧爲鷄口，勿爲牛後：차라리 닭의 부리가 될지언정, 소의 꼬리는 되지 말라. 큰 단체의 말석에 있기보다는 작은 단체의 우두머리가 되라는 뜻

<15~16번 해석>

갈까마귀가 고기를 입에 물고 나무위에 머물러 있었는데, 여우가 지나가다가 그것을 얻고자 하여 쳐다보며 말하길, “그대의 몸은 이미 장대하고 깃털 또한 윤택합니다. 내가 본래 그대가 노래를 잘한다고 들었는데, 한 곡 불러주기를 청합니다.”하였다. 갈까마귀가 기뻐하며 입을 벌리고 소리내려고 하니, 소리가 아직 나지 않았는데 고기는 이미 떨어졌다. 여우가 재빨리 그것을 취했다.

15. [정답] ②

[해설] 글의 교훈과 관련 있는 문장 찾기

- ▷ 남의 까닭없는 아침은 조심해야 하며, 나를 추켜세우는 감언이설은 나를 해치는 것이다.
- ① 百聞不如一見：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 ② 道吾善者，是吾賊：나의 잘난 점(착한 점)을 말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적이다.
- ③ 他人之宴，曰梨曰栗：남의 잔치에 배 놓아라 밤 놓아라 한다. 쓸데없는 참견을 경계함
- ④ 我腹既飽，不察奴飢：내 배가 이미 부르면 종의 굶주림을 살피지 않는다.
- ⑤ 匹夫見辱，拔劍而起：필부는 욕을 당하면 칼을 뽑아 일어난다.

16. [정답] ②

[해설] 어구풀이

- ① ㉠-澤(택) ② ㉡-素(소) 희다× ⇒본디 ③ ㉢-善(선) ④ ㉣-悅(열) ⑤ ㉤-張(장)

<17~19번 해석>

평강왕의 어린 딸이 울기를 잘 해, 왕이 놀리면서 말했다. “네가 항상 울어 내 귀를 시끄럽게 하니, 커서 반드시 사대부의 아내는 될 수 없고, 마땅히 바보 온달에게나 시집보내야겠다.” 왕이 늘 그렇게 말했는데, 공주가 16살이 되어 상부 고씨에게 시집보내려고 하자, 공주가 대답하기를, “대왕께서는 늘 말씀하시기를 '너는 반드시 바보 온달에게 시집보내야겠다.'고 하시더니,

지금 무슨 까닭으로 전에 하신 말씀을 바꾸려 하십니까? 평민들도 오히려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지존(至尊)에 있어서겠습니까? <중략> 왕은 크게 노하여 말했다. “네가 내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니 내 딸이 될 수 없다. 어찌 같이 살 수 있겠느냐? 마땅히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17. [정 답] ③

[해 설] 어구풀이

▷ 二八 : 2×8의 뜻으로 16을 의미한다. 예) 三七日 : 21일

18. [정 답] ①

[해 설]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여 한자어로 적용하기

▷ 임금으로서의 信義(신의)를 강조하고 있다.

① 信義(신의) ② 勤勉(근면) ③ 慈愛(자애) ④ 孝誠(효성) ⑤ 忠直(충직)

19. [정 답] ④

[해 설] 문장의 해석

▷ 宜從汝所適矣 : 마땅히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20~22번 전문 해석>

(가) 봄잠에 날 새는 줄 몰랐는데, 곳곳에서 새 우는 소리 들리네.

밤사이 비바람 소리로 보아, 꽃이 얼마나 졌을까?

(나) 맑은 가을 긴 호수에 벽옥 같은 물 흐르는데

연꽃 깊은 곳에 목란배 매어 두었죠.

님을 만나러 물 건너로 연밥을 던지다가

남의 눈에 띄었을까 반나절이나 부끄러워했어요.

20. [정 답] ③

[해 설] 한시의 감상

21. [정 답] ⑤

[해 설] 한시의 시구풀이를 통한 주어 파악

▷ ㉠~㉢의 주체는 시적화자이고, ㉤의 주체는 다른 사람이다.

22. [정 답] ②

[해 설] 한시의 형식과 표현방법

- ▷ (가)에서 ‘聲’은 운자가 아님. 5언절구는 대개 짝수句에 압운이 온다.
- ▷ (나)에는 대우(對偶)가 쓰이지 않았다.

23. [정 답] ①

[해 설] 제시한 글의 주제와 가까운 문장 찾기

- ①人無信, 不立 :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서지 못한다.
- ②巧言令色, 鮮矣仁 : 교묘한 말과 좋은 낯빛을 하는 사람 중에 어진 사람은 드물다.
- ③過而不改, 是爲過矣 :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 바로 잘못이다
- ④人無遠慮, 必有近憂 : 사람이 멀리 생각함이 없으면, 반드시 가까운 때에 근심이 있다.
- ⑤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 벗이 있어 먼 곳으로부터 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24. [정 답] ④

[해 설] 대화의 내용으로 빈 칸에 들어갈 문장 유추하기

- ▷ 공자(孔子)와 제자 증자(曾子, 曾參)의 대화이다.

子曰 “參乎 吾道一以貫之” 曾子曰 “唯” 子出 門人問曰 “何謂也” 曰 “夫子之道 忠恕而已矣”  
자왈 “삼호 오도일이관지” 증자왈 “유” 자출 문인문왈 “하위야” 왈 “부자지도 충서이이의”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삼아! 나의 도는 하나로 그것을 관통하느니라.” 증자가 말했다. “예.”  
공자가 밖으로 나가자 문인이 증자에게 물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증자가 말했다. “선생님의 도는 충서일 뿐입니다.”

<25~27번 전문 해석>

주열의 자는 이화요 능성 고을 사람이다. 성품이 곧고 굳세서 악한 사람 미워하기를 원수처럼 하였다. 진실로 그 사람다운 이가 아니면 비록 권세 있고 존귀한 자에게라도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 고려 충렬왕 때에 일찍이 일이 있어서 재상부에 이르렀는데, 재상이 주열과 더불어 말을 함에 주열의 앉아 듣는 자세가 매우 거만하였다. 재상이 아전에게 시켜 말하기를 “재상이 말을 하면 마땅히 땅에 엎드려서 들어라.”하시었다하니, 주열이 말하기를 “재상의 말을 엎드려 듣는다면 곧 임금의 말씀은 마땅히 땅을 파고 들어가서 들어야 하는가!”하고 끝내 굴복하지 않았다.

25. [정 답] ⑤

[해 설] 한자어의 짜임

▷ 權貴(권귀) : 권세 있는 자와 존귀한 자 (병렬)

① 夜深(야심) : 밤이 깊다 (주술)      ② 登校(등교) : 학교에 가다 (술보)

③ 讀書(독서) : 책을 읽다 (술목)      ④ 骨折(골절) : 뼈가 부러지다 (주술)

⑤ 草木(초목) : 풀과 나무 (병렬)

26. [정 답] ⑤

[해 설] 통의자 찾기

▷ 宜(의) 마땅히 = 當(당) 마땅히

27. [정 답] ③

[해 설] 문맥상 빠진 글자 유추하기

▷ 終不屈 : 끝내 굴복하지 않았다.

<28~30번 전문 해석>

일본 경찰이 엄하게 신문하기를 “너는 무엇 때문에 깃발을 잡고 기뻐하며 즐거워 하느냐?” 하였다. 여자 아이가 “나는 잃었던 물건을 다시 찾았기 때문에 기뻐한 것뿐이다.” 하니 일제 경찰이 “너는 무슨 물건을 잃었느냐?” 여자 아이가 “우리 대한의 민족에게 대대로 전해오는 삼천리 금수강산이다.” 일본경찰이 “너는 어린 아이인데 무엇을 안다고 이를 즐거워하느냐?” 여자 아이가 다시 부드러운 말로 대답하기를 “당신은 정말 아는 게 없군요. 지난번에 우리 어머니가 작은 바늘 하나를 잃어버려서 반나절이 되도록 찾다가 마침내 얻고서는 얼굴에 기쁜 빛을 띠셨는데 하물며 삼천리 금수강산이 다시 우리의 것이 되었는데 어떤 즐거움이 그와 같으리오.” 하니 일본 경찰이 또한 감격하여 눈물을 떨구었다고 한다.

28. [정 답] ②

[해 설] 이음이의자(異音異義字)의 독음

▷ 復 1.돌아오다(복) 2.다시(부), 更 1.고치다(경) 2.다시(갱) 3.시각(경)

29. [정 답] ④

[해 설] 해석 순서

▷ 乃得而喜形於色 : 이에(내) 얻고서(得而) 기쁜 빛이(喜) 얼굴(色)에(於) 드러나다(形)

30. [정 답] ④

[해 설] 글의 전체 내용 이해

▷ 작은 바늘을 잃어버린 사람은 여자 아이의 어머니이다.